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① 1월의 기능한국인 (주)왕성테크 박해성 대표

붙임 2

“3현(현장 현물 현실)주의로 다진 경쟁력,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다”

- 박해성 대표는 1977년 판금·용접 자격 취득과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 판금 분야 1위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현장 경력을 포함해 45여 년간 자동차 차체 및 시트 프레임 제조업에 매진해 왔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3현주의(현장·현물·현실)’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과 혁신 경영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IMF 외환 위기 당시, 용접 가공 위주의 생산 체계를 프레스 성형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고강도 철판 용접·프레스 공정의 로봇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며 자동차 부품 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주)왕성테크는, 현재 생산하는 시트 부품의 60%를 미국과 멕시코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현장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로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기술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지원과 멘토링에 힘쓰고 있다.

② 2월의 기능한국인 태양3C(주) 황창순 대표

붙임 3

“200만 원의 기적, 의료기기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다”

- 황창순 대표는 자본금 200만 원의 1인 창업으로 시작해, 40여 년간 전자 및 의료기기 부품 국산화에 매진해 온 숙련기술인이다. IMF 외환위기와 2007년 LCD 백라이트 사업 위기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재편의 파고를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술 전환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해 왔다.
- ‘초극세 동축 케이블 조립·가공’이라는 틈새 기술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음파 진단기용 핵심 부품인 ‘프로브 어셈블리’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으로 현장형 인재 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벤처기업협회 리더로서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장인정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③ 3월의 기능한국인 제일정보통신(주) 송원호 대표

붙임 4

“특수 영상감시 분야의 해결사, 현장의 답으로 보안의 벽을 세우다”

- 송원호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숙련기술인으로, “현장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실용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 왔다.
- 정보통신공사, CCTV·NVR·통합 영상감시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등 특수 목적용 신기술 개발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기술개발형 정보통신 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첨단 영상장비 기증과 정기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IT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업인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규석)은 산업 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 기업 대표 총 3명을 2026년 1~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4월 22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 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금까지 총 229명의 기능한국인이 배출되었으며, 매년 후배들에게 기술인재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및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및 피해지역 봉사활동 등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능한국인들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성공의 문턱을 넘어선 숙련기술계의 본보기”라고 높이 평가하며 “오랜 시간 기술 현장에서 다져온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 기술인재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서 선배 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했다.

- 붙임 1. '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 개요
2. 1월 기능한국인(박해성 대표) 선정자 공적 개요 등 자료
 3. 2월 기능한국인(황창순 대표) 선정자 공적 개요 등 자료
 4. 3월 기능한국인(송원호 대표) 선정자 공적 개요 등 자료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재국 (044-202-7286)
		담당자	사무관	양지현 (044-202-7291)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책임자	부 장	최은정 (032-509-1851)
		담당자	대 리	정명진 (032-509-1858)



붙임 1 '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 개요

☐ 일 시: '26. 4. 22. (수) 14:00~14:50 (50분)

☐ 장 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

○ (노동부) 차관, 직업능력평가과장 등

○ (기능한국인 등) '26년 1~3월 기능한국인, 배우자·자녀(3명) **붙임 1**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1월 기능한국인	(주)왕성테크 대표	박해성	
2월 기능한국인	태양3C(주) 대표	황창순	
3월 기능한국인	제일정보통신(주) 대표	송원호	

○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장 등

○ (관련 단체) (사)기능한국인회 회장 박주석((주)마팔하이테크 대표이사)

☐ 내용

○ '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및 간담회

* (기능한국인 현황, 총 229명) '25년 12월까지 선정인원 226명 + '26년 1~3월 3명

☐ 진행순서

시간('50)	일정	비고
14:00	개회	사회 : 직업능력평가과장
14:00~14:20('20)	1~3월 선정자 증서·휘장·홍상패 시상	
14:20~14:50('30)	기능한국인과의 대화	

공적 개요

(주)왕성테크 박해성 대표는 자동차 차체 및 시트 프레임 제조 분야의 숙련 기술인으로서 45여 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며 부품 국산화와 공정 자동화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용접 가공 중심의 생산 체계를 프레스 성형 분야로까지 확대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딥러닝 기반 용접 품질검사 장치 등 다수의 특허와 SQ인증을 확보하며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로봇 자동화 라인 고도화와 후배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 명	박해성 <만 66세>
사업장명	(주)왕성테크
사업장	업종(주생산품) 제조업(자동차 차체, 샤시, 의장부품)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58
주요경력	'80 ~ '87: 기아자동차(주) 근무 '88 ~ '94: 기영산업(주) / 과장 '95 ~ 현재: (주)왕성테크 / 대표이사
출신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1978) 조선대학교 대학원(2020, 석사)
특허·실용신안 & ISO 인증 등	(특허) 제10-2005804호 "차량의 서브프레임용 마운팅 브라켓" (특허) 제10-2877596호 "딥러닝 기반 용접 품질검사 장치" (특허) 제10-2076335호 "맨홀 탈취기" (인증) WD648 SQ인증서 (인증) 제2025-11호 광주지역스타기업 인증 (ISO) ISO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 (연구소) 제2012112412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자격 취득	일반판금기능사 2급(1977) 가스용접기능사 2급(1977)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 판금 1위(1977)
주요 수상 내역	법무부장관 표창장(2014) 광주광역시장 표창장(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2022) 외 다수

□ 인터뷰 주요 내용

「이달의 기능한국인」 227번째 선정자 (주)왕성테크 박해성 대표는 현장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3현 주의(현장·현물·현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켜온 베테랑 기술인이다. 기아자동차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선 그는 현재 고강도 철판 용접·프레스 가공 공정의 로봇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생산하는 시트 부품의 60%를 미국과 멕시코 등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일구어냈다. 박 대표는 이번 선정에 대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온 직원들과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함께 이룬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로 일군 청춘, 판금 1위 소년에서 전문 경영인까지

박해성 대표는 1977년 일반판금기능사 2급과 가스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해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 판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1980년부터 기아자동차(주)에서 실무 역량을 쌓았고, 기영산업(주) 과장을 거쳐 1995년 (주)왕성테크를 설립하며 경영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창업 초기부터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는 집요함을 바탕으로 기술적 신뢰를 쌓아나갔다.

위기를 기회로, 사업 구조 전환으로 증명한 기술력

박해성 대표의 경영 여정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창업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맞닥뜨린 IMF 금융위기와 거래처 부도는 회사 존립을 흔드는 시련이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좌절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기존 주업종이었던 용접 가공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 난도가 높은 소성 가공(프레스 성형) 분야의 제품 개발에 도전하여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오늘날 1공장의 로봇 자동화 라인 구축과 시트 부품 60% 해외 수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아울러 2공장에서는 지하철 공사용 가설재인 복공판을 개발해 타사 제품 대비 무게는 약 30% 줄이고 강도는 약 20% 높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납품하는 등 지역 인프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도성과 학습이 성장의 열쇠"

박 대표는 기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의 집요함'을 꼽았다. 기술적 정직함, 지속적인 학습과 유연성, 그리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능력이 진정한 고수를 만든다는 철학이다. 또한 경영인 으로서는 기술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번역하는 소통 능력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배 청년 기술인들에게 "꾸준한 학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역량을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주도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이 자신의 설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기술은 결국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성장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후진 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술 멘토'

박해성 대표는 현장에서 쌓은 숙련기술을 후배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재)한국능력개발원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 '살아있는 기술'을 전파하는 한편, 사내에서도 체계적 현장 훈련과 위탁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또한, 기술 전수를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도 눈에 띈다. 박 대표는 2014년 소년보호행정 발전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 경영

박해성 대표의 시선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향하고 있다. 딥러닝 기반의 품질 검사 장치와 화물차 적재 중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속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기업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병행하며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 사진 자료



공적 개요

태양3C(주) 황창순 대표는 케이블 어셈블리 분야의 숙련기술인으로서 40여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며 부품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초극세 케이블 및 의료기기용 케이블 조립·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과감한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며, 향후 의료용 카테터 조립 공정의 세계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제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성명	■ 황창순 <만 71세>
사업장명	■ 태양3C(주)
사업장 업종(주생산품)	■ 제조업(케이블 어셈블리)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농공단지길 23-21
주요경력	■ '83 ~ '88: 태양상사(주) / 대표이사 ■ '88 ~ 현재: 태양3C(주) / 대표이사
출신학교	■ 서울공업고등학교(1973)
특허실용신안ISO 인증 등	■ (특허) 제10-2011144호 “케이블 연결회로 검사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10-1782035호 “초극세 케이블 및 이의 제조 방법” ■ (특허) 제10-2039136호 “플렉서블 특성이 우수한 고열전도성 방열 시트 및 그 제조 방법” 외 다수 ■ (ISO)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ISO)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외 다수
주요수상내역	■ 제19회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 유공자 은탑 산업훈장(2007) ■ 국무총리 표창(2009) ■ 강원수출대상 우수상(2024) 외 다수

인터뷰 주요 내용

「이달의 기능한국인」 228번째 선정자인 태양3C(주) 황창순 대표는 40여년간 전자부품 및 의료기기 부품 국산화에 매진해 온 숙련기술인이다. 황 대표는 이번 선정에 대해 “관리직 장교의 길 대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병의 삶을 선택했던 공고생 출신으로서, ‘진짜 기술인’을 예우하는 이 상을

받은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자부심"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1인 창업의 척박한 환경을 딛고 현재 초음파 진단기용 프로브 어셈블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일궈냈다.

자본금 200만 원으로 일궈낸 청계천 신화

황창순 대표는 서울공업고등학교 화공과와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짧은 직장 생활을 거쳐 자본금 200만 원으로 청계천에서 홀로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사무실도 없이 당시 통신수단이었던 텔렉스조차 타 업체의 설비를 빌려 써야 했으며, 무역 및 오퍼 업무도 타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등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그야말로 1980년대 초기 벤처나 다름 없는 출발이었다.

창업 초기에는 열수축 튜브 판매업으로 시작해 케이블과 연관이 깊은 전장 업계, 이른바 하네스 업계로 거래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중국·대만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만여 개 동종 업체가 폐업하는 위기가 닥쳤다. 황 대표는 이를 도태의 신호가 아닌 새로운 기술 방향을 모색할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

환차손과 구조조정의 파고를 넘은 기술적 결단

황 대표의 경영 여정은 기술적 결단의 연속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0억 원 규모의 환손실을 입는 고초를 겪었고, 2007년에는 주력하는 LCD 백라이트 램프 어셈블리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500명 규모의 인력을 200명 이내로 줄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국의 저가 노동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초극세 동축 케이블 조립·가공이라는 틈새 시장에 집중하여 초음파 진단기용 핵심 부품 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기술인의 덕목은 장인정신, 경영인의 역량은 포용력

황 대표는 기술인의 핵심 덕목으로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성실한 장인 정신”을 첫째로 꼽는다. 이에 더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창의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경영은 영화의 감독과 같은 것”이라 비유하며, 사람에 대한 포용력과 리더십, 미래에

대한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후배 기술인들에게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며, 부족한 인재라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정신을 미래로 잇는 ‘산학연 협력의 가교’

황창순 대표는 모교인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강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현장 실습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청년 기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강원대학교와의 산업·학술 동향 정보 교류와 기술자문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특허 5건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학계와 산업계의 역량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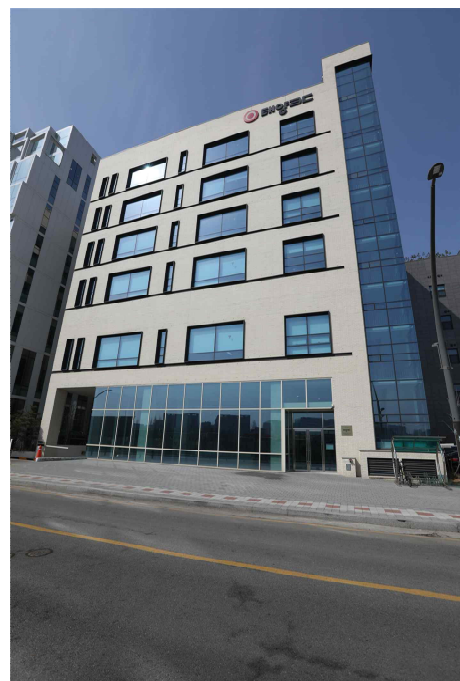
아울러 벤처기업협회 강원지회장으로서 후배 경영인들에게 기술경영 노하우를 전파중인 황 대표는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장인정신이 미래 산업의 뿌리가 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며 후배들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이끌고 있다.

세계 최고 카테터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현재 강원도 홍천 본사와 서울 마곡 R&D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용 케이블 모듈 및 일회용 요도내시경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황 대표는 태양3C(주)를 카테터 조립 가공 분야의 세계적 양산 능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미래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기술 개발의 성과가 현장 구성원의 삶으로 이어질 때 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정년퇴직한 여성 근로자들이 "홍천공장에서 일하여 번 월급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켰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 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기업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

□ 사진 자료



☐ 공적 개요

제일정보통신(주) 송원호 대표는 정보통신 및 영상감시 장비 분야의 숙련 기술인으로, 30여 년간 관련 산업을 지키며 기술력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AI 기반 지능형 혼합 영상감시 시스템과 전자기펄스(EMP) 방호형 영상감시시스템 등 특수 목적용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안보·재난 대응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의 특허 및 ISO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기술 경영의 내실을 다져 왔다.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과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명	■ 송원호 <만 56세>
사업장명	■ 제일정보통신(주)
사업장 업종(주생산업종)	■ 제조업, 건설업(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방송장비)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화신로 60
주요경력	■ '88 ~ '95: 진석테크원 / 과장 ■ '95 ~ 현재: 제일정보통신(주) / 대표이사
출신학교	■ 동로중학교(1983) ■ 상주공업고등학교(1986) ■ 구미대학교(2011, 학사) ■ 금오공과대학교 산업대학원(2017, 박사)
특허실용신안·ISO 인증 등	■ (특허) 제10-1795798호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단독) ■ (특허) 제10-1795797호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단독) ■ (특허) 제10-1642815호 "더미 셀을 통해 전자기 펄스 방어 기능을 갖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시스템" 외 다수 ■ (ISO)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 ISO/IEC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 (ISO)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외 다수 ■ (디자인) 제30-1301486호 "CCTV용 카메라" ■ (상표) 제40-1361051호 상표등록증 "J"
자격취득	■ 전기기능사(1985) ■ 정보통신 특급기술자(2025) ■ 정보통신 특급 감리기술자(2025)
주요수상내역	■ 특허청장 표창장(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2024) ■ 국무총리상 수상(2025) 외 다수

□ 인터뷰 주요 내용

「이달의 기능한국인」 229번째 선정자 제일정보통신(주) 송원호 대표는 30년 동안 정보통신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기술 역량을 축적해 온 숙련기술인이다. 통신·영상감시 설비의 기초 실무부터 시작해 CCTV, NVR, 영상감시 장치, 정보통신 설비 분야의 기술을 쌓아 왔으며, 최근에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후배 기술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송 대표는 이번 선정을 두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기술 하나로 걸어온 과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고 밝히며, 그 공을 임직원과 동료, 가족, 지역사회의 응원에 돌렸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뛴 기술자’의 신뢰 경영

송원호 대표는 상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정보통신 현장에 뛰어들어 통신·영상감시 설비 설치와 운영 실무를 한 단계씩 몸으로 익혔다.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고민하던 그는 1995년 제일정보통신(주)를 창업했다. 창업 초기,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가 지킨 원칙은 “한 번 맡기면 믿고 다시 찾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로 두터운 신뢰를 쌓아 올렸으며, 이것이 오늘날 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의 미래를 열다

송 대표는 단순 시공에서 나아가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했다. 특히 핵전자기 펄스(HEMP) 등 특수 환경에서도 영상 기능을 유지하는 방호형 시스템과 AI 기반 지능형 혼합 영상감시 기술 개발은 그가 현장의 요구를 가장 잘 알았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실용적인 기술을 만든다”는 확신으로 이를 극복해 냈다. 그 결과 다수의 특허와 국제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환경·정보보호·안전보건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다.

기술인의 덕목,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기술인

그는 기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실패, 반복을 통해 쌓이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히 정보통신·영상감시 분야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점점하는 집요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인은 품질과 책임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경영인은 사람과 조직,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기술과 경영이 현장의 중심에서 하나로 만나야 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기술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다

송원호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CT폴리텍대학에 영상감시장치를 기증하여 실습 환경 개선을 돕는 한편, 금오공과대학교와 구미대학교 등 지역 대학 및 초·중·고교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며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복지시설에 무료로 CCTV를 설치해 주는 등 자신의 기술력으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기적인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유공패(금장)를 수상하기도 한 송 대표는 “현장을 아는 기술자가 사회에 기여할 때 그 기술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신념으로 나눔의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사람을 키우는 기술인, 후배와 함께 성장하다

송 대표는 인재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속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좋은 기술을 지속하려면 함께 성장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후배들에게 현장 경험과 책임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청년 기술인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기술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는 그는, 자신의 숙련기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가장 큰 가치를 느낀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그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과 효율을 선물하는 멘토이자 기업가로서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다.

□ 사진 자료

